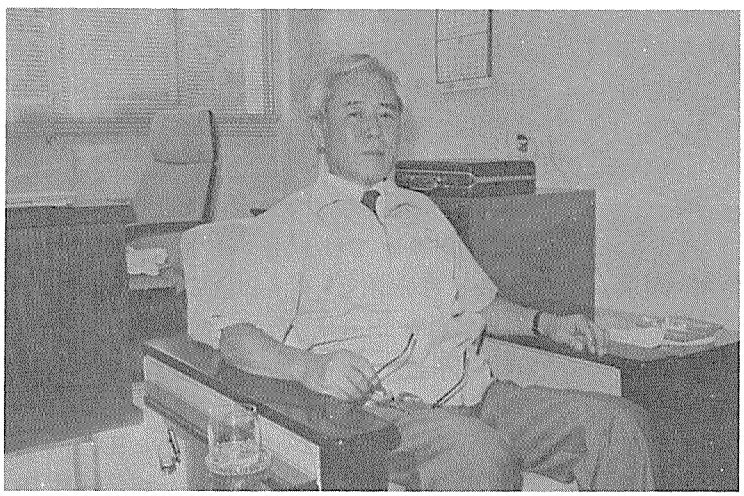
모터업계 한마음 되면 희망있다.

이 홍 채 사장



● 약력 : 193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
부품산업협의회 모터분과 위원장

한국써보(주)의 주력사업 분야는?

저희는 전자·기계분야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모터의 기능도 다양화된 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DC Brushless Motor가 70%를 Induction on Motor (Gear Mortor)가 20%, Stepping Motor가 10%로 생산비중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모터들은 우리의 우수한 설계능력, 양산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고정도, 안정성, 내구성 등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Motor들을 서독, 일본, 싱카폴 등에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요. 물론 국내에도 Capstan Motor 등을 공급하고 있어요.

귀사의 모터산업의 기술경쟁 여건은?

모터에 따라 다르지만 DC Brushless Motor경우는 세계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있는 제품입니다. Stepping Motor만 하더라도 경쟁이 심한 Motor인데 악전고투하고 있어요. 외국업체와의 경쟁 즉 일본업체들과의 경쟁이 쟁점으로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일본이 세계시장을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지요. 기술경쟁에 따르는 부수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임금상승, 생산성약화, 고금리 등과 같은 것이지요. 가령 일본은 금리가 약 9%인데 우리는 12%~20%까지 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요. 또 DC Brushless Mortor 경우 국산화가 되지 않는 부품이 금액비중으로 보아서 15%나 되요. 물론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 가져오는 요소부품이기 때문에 대일 의존도가 강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좋은 기술력을 갖는데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변동도 심각한 요인이 됩니다. 기술수준이라 한다면 소재가공기술이나 생산기술 등이 뒤떨어져 있어 앞으로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갖추려면 이러한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귀사의 연구소를 소개해 주신다면?

일본과 기술제휴가 되있는데도 연구소를 만든 이유는 기술제휴 되있는 노하우를 국내 하청업체에 전수하고 기술을 흡수 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와 하청업체간에 응용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연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생산·설계기술, 즉 응용설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가스보일러에 들

어가는 배기팬, DC Brushless펌프 등을 개발에 냈습니다.

모터산업의 당면과제는?

국내보다는 일본업체와의 경쟁에서 기술·경영상에 나타나는 문제가 많은데 우선 생산인력이 감소, 고임금, 고금리,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고 대기업의 부품계열회사가 있어서 그들이 생산하고 자급해서 쓰니까 중소업체에는 돌아올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채산성을 무시하면서 생산하고 또 쓰고 나머지는 우리같은 업체에 주기 때문에 경쟁실태를 생각해 보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 연연할 생각이 없어서 좋은 제품의 한국적 소형모터의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일본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합해 당면한 기술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입니다.

경영여건 전망은?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가령 전력소모가 적고 연소상태에 따라서 팬을 조절, 열효율을 높이는 가스보일러에 들어가는 Fan이라든지 말이지요. 요즈음은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서 제때에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어서 낙관적으로 봅니다. 또 세계 모터추세가 Induction Motor에서 DC Brushless Motor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DC Brushless Motor에 계속 경주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사장님의 경영철학은?

한마디로 "사고의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발상의 전환이죠. 경력사원들과 이야기 해보면 그들이 처음 입사해서 가졌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달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에 가졌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적극적인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늘 이야기 하곤 합니다.

부품산업협의회의 모터분과위의 역할은?

우리 모터분과위가 현재 6개사가 가입되어 있는데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모터업체가 100여개나 되는데 이 6개사는 말도 안됩니다. 더구나 진흥회 회원사도 가입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저는 직접 찾아가서 가입을 권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큰 과제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국내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정보교환을 해야 합니다. 국내 뿐만아니라 일본등 외국업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지요. 지금 모터 업계 설비가 다 쉬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터업계가 한마음이 되어서 뭉치면 우리 업계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잘되어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 모델로 대만을 예로 들어 보지요.

그 어려운 무역장벽 속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대만이 부품산업이 잘 되어있기 때문이지만은 애초에 우리나라는 시스템부문만을 너무 강조해서 부품산업이 취약한 현실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시스템보다는 부품에 대한 산업정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대만은 이 부품산업에서 무역마찰을 이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세계 최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무역수지에서도 흑자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등한시 해왔어요.

「부품산업협의회」 이것도 15년전에 했어야 돼요. 저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은?

일부는 되었지만 국내 업계 실정으로 보아서 소형 모터의 국내 소요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일지 모르지만 수입다변화 품목으로 지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모터시장이 일본산 모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에서 말이지요.

또하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과대 선전적인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대만과 같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산업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대만처럼 부품산업을 집중육성하는 정책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특화된 제품을 만들고 과감한 정책을 펴 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도 비전이 있는 산업의 발전전략이 업계 전반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